



21세기 포장산업 리더로 자리잡아야

포장기술사 능동적 참여 주력

이명용 / 한국포장기술사회 회장 · 한국포장컨설팅 대표

1995년 12월 창립해 아직은 짧은 경력을 가진 한국포장기술사회의 신임 회장에 이명용 한국포장컨설팅대표가 선임되었다.

시험의 난이도 때문에 그 수가 많지 않고 그만큼 우리나라의 포장기술을 이끌어 간다는 사명감을 공감하고 있는 회원들은 신임 회장의 취임으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아직은 회장이라는 직함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지난 토요일이었으니 이제 4일 지난건가요?”라며 이 회장은 그 명칭에 대한 서먹함을 대신했다.

농산물검사소 화학분석실 근무를 시작으로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딛은 이 회장은 당시 농산물 포장의 낙후성 때문에 포장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고 한다.

농산물 포장의 개선점을 생각하고 있을 당시인 71년에 디자인포장센터에서 근무하던 김영호 현 한국포장기술사회 명예회장을 만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포장과 인연을 맺게 되었



다는 이 회장은 “한번은 디자인포장센터에 간접이 있었습니다. 한참 농산물 포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때였는데 김회장님께서 일하시던 모습이 너무 열정적이었습니다. 포장에 대한 인식이 전무할 때였는데도 김회장님께서서는 포장분야의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인연으로 이 회장은 72년 디자인포장센터에 포장개발부 연구원으로 입사했다.

이후 이 회장은 디자인포장센터에서 92년 퇴직할 때까지 정부 관련 연구들을 해왔고 산업디자인부장과 본부장을 역임했다.

포장기술사의 대상이 단순히 기술관련 업무 종사자에 한하지 않고 전반적인 포장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범주에 속한다는 이 회장은 포장기술에 대해 “제품생산만이 포장업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포장기술, 기술을 제품에 적용하는 행위, 또한 서비스업까지 포괄적인 것입니다”라는 말로 포장산업 내에서의 기술의 역할을 제고했다.

포장기술사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포장

기술사분들이 많아져야 되지 않겠냐는 질문에 이 회장은 양의 문제가 아닌 질의 문제를 거론했다. “시험응시자격도 까다로울 뿐더러 시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응시를 하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사람만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나라 포장산업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지요. 얼마나 열성적으로 일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는 이 회장은 포장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에서 부재료로 인식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업체에서 포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그 안에 담길 내용물에 가치를 더 두기 때문에 포장이라는 것 자체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회장은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물류부문과 포장을 결합시켰다.

물류의 시작이 포장이고, 포장으로 인해 물류비를 감소함은 물론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까지 결과를 미치는 실정인데 다른 쪽에서 물류비를 줄이려고 하는 경우는 많아도 포장부문을 좀 더 연구하여 물류비 감축을 가져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은 얼마 안된다는 것이다.

포장기술사회 회장으로서 앞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이회장은 포장업계가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과 함께 순수한 기술발전을 위한 대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기 위

해 노력할 것이라는 결심을 내비쳤다. 또한 외국 기술을 답습하던 행위들은 버리고 자체적인 기술개발로 우리나라만의 know-how 확립을 위해 힘쓰겠다는 이 회장은 최근 디자인 분야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듯이 포장분야도 이런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새 천년을 맞아 포장기술사들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포장업계의 리더역할을 포장기술사들이 해야죠. 좀 더 능동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포장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금조성의 발판도 만들어야겠습니다.”

첨예화·대립화되어 있는 포장업계를 공정성 있게 이끌어 나가면서 한국포장기술사회가 포장산업의 요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 회장은 앞으로 포장표준화사업을 위해서도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포장기술사라는 거창한 이름이 아닌 포장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이들이 우리나라 포장기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만이 한국포장기술사회 뿐만 아니라 업계들도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풀려지는 것 보다는 내실을 강조하고 중요시하는 이 회장의 취임으로 한국포장기술사회는 새 천년의 시작과 함께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맞고 있다. ☐

이선경 기자